

## 20대 여성 상의의 착용 색채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 - 1998년과 2004년을 대상으로 -

조 정 미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 A Study on Change of Color Preference of Young Women's Wear - Comparison between 1998 and 2004 -

Jung-Mee Cho

Clothing & Textiles Major, School of Human Ec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4. 10. 19.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color preference of young women living in Seoul, to provide materials which is useful for setting up the color plan for a better costume, and to suggest new information in the apparel study. This study was done on the basis of color preference only by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range of this study restricted on young women's clothes. The subjects were 1,100 in 1998, 1,393 young women in 2004. They were photographed in the street.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and  $\chi^2$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The preference of chromatic color and achromatic color, hue and tone, pattern of textiles are different mainly by regional characteristics.

- 1) In 1998, young women preferred achromatic colors to chromatic colors. and the most preferred achromatic color was black, especially women of YOUNGDUOPO area prefer black. But, in 2004, young women preferred chromatic colors to achromatic colors and the most preferred achromatic color was white in the all areas.
- 2) Analysis of hue shows that in 1998, blue is most preferred color in the all areas by young women. But, in 2004, the most preferred color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areas
- 3) Analysis of tone shows that in 1998, vivid, pale, dark tones are commonly preferred by young women. However, APGUJUNG area have specially inclination, they prefer vivid, pale and light tone. In 2004 year, pale, vivid and bright tones are most preferred tones in the all areas.
- 4) Analysis of pattern of textiles shows that, pattern textiles were preferred by young women of APGUJUNG area in 1998 and YOUNGDUOPO area in 2004. The most preferred pattern for young women in all area was a stripe pattern.

**Key words:** Street color research, Color preference, Young women's wear, Regional characteristics; 거리 색채 조사, 색채 선호도, 여성복, 지역

---

\*본 연구는 2004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 I. 서 론

인간은 여러 가지 물체로 이루어진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며, 이들 물체는 모두 다양한 색채로 제 각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색채는 매우 감각적인 요인으로 우리의 정서 상태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우리들은 색채의 좋고 나쁜 구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 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모두 색채를 배제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인간 생활과 가장 밀착된 의복에 있어서 색은 가장 표현력이 큰 요소이면서 가장 먼저 지각되는 디자인의 한 요소이다. 복식에서도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의복의 색채는 소비자가 의류 상점 안에 들어가서 상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흥미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다음 단계인 시도단계와 구매단계로 소비자의 행동을 연결시켜 구매의 가능성을 높이는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김순애, 1987; Eckman 외, 1990).

현대에 와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 산업이 점차 대량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품화하려는 상품기획 활동이 패션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의류상품 기획 및 디자인에서 색채분석은 가장 초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이 때, 소비자들의 색채기호에 대한 잘못된 정보 분석은 상품기획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오늘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 기성복 시장에 맞추어 소비자의 색채 기호나 유행에 따른 색채 기호 변화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자료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최근 소비자의 복식색채 기호나 색채가 주는 인상형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사회·심리적 특성과 색채선호와의 관련성 및 색채선호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김순애, 1987; 김영인 외, 1999; 김인수, 1985; 은영자, 박소희, 1996; 정삼호, 1987, 1990; 조정미, 1999)들이나 색채에 의한 인상형성에 대한 연구(고애란, 1990; 백선원, 1990; 이주현, 1990; 이혜숙, 김재숙, 1998; 석재은, 1993; 성희진, 1994; 조희련, 1993)들과 의복 이미지 선호 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에 대한 연구(김영인 외, 2000; 이명희, 1992)들이 진행되어 복식색채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류업체들의 변화하는 유행에 따른 색채 기획에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복식색채의 유행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연구방법 또한 전반적으로 설문지와 색채 견본(color chip), 기타 자극물을 통한 심리학적 접근이나 여성 잡지를 통한 복식사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복식을 착용하는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관찰 조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식 색채의 착용 경향의 변화를 스트리트 컬러 리서치(street color research)에 의해서 조사함으로써, 기성복업체의 색채기획 및 백화점 마케팅 전략 수립 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998년도와 2004년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첫째, 서울지역 젊은 여성들의 복식색채 착용경향의 변화를 조사한다. 둘째, 영등포, 명동, 압구정의 지역별 젊은여성들의 복식색채의 착용 경향의 변화를 조사한다. 셋째, 부가적 관심으로 복식의 문양 선호도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식 색채의 착용 경향의 변화를 스트리트 컬러 리서치(street color research)에 의해서 조사함으로써, 기성복업체의 색채기획 및 백화점 마케팅 전략 수립 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998년도와 2004년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첫째, 서울지역 젊은 여성들의 복식색채 착용경향의 변화를 조사한다. 둘째, 영등포, 명동, 압구정의 지역별 젊은여성들의 복식색채의 착용 경향의 변화를 조사한다. 셋째, 부가적 관심으로 복식의 문양 선호도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다.

## II. 문헌고찰

### 1. 복식색채 기호

색채의 다양한 표현력과 더불어 색채에 대한 기호는 각기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색채의 좋고 싫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많은 연구를 통하여 여러 요인들의 영향으로 각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집단 공통의 색채기호와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정지현, 1983). 색채기호에 대한 학설은 일반적으로 Trey와 Birren, F의 학설에 따라 크게 지역설, 민족설, 연령설, 계층설, 소득설, 교양설, 유행설(김용훈, 1987)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와 같이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색채기호의 특성이 나타나기 보다는 이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특정 집단의 색채기호가 만들어 진다는 주장이 더 부각되고 있다. 복식색채 선호경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Lind(1993)는 개인이 선호하는 일반 색상은 의복 색상에 대한 선호와 관련이 있었으며, 소비자의 색채 선호에는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 둘 모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복식의 색채 선호의 다양한 기호가 형성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격에 따른 색채선호에 대한 연구로서 Radeloff (1991)에 의하면, 계절별 색채 선호에서 내향적 사고 유형을 제외한 모든 심리적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외향적 감각 유형은 네 범주의 계절 색채 선호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미지나 인상 형성에 관련된 연구로는 고에란 (1990), 이주현(1990)등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스타일의 의복이라도 색상에 따라서 인상형성이나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애, 이명희 (1992)의 연구에 의하면 진보적인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빨강과 노랑을 선호하며, 활동적인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파랑을 선호하고, 캐주얼한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초록색을 선호하는 반면 빨강과 검정을 싫어하고 남성적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빨강, 주황, 노랑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남녀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한 박현일(1989)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 고등학생들은 파랑, 녹색, 노랑, 흰색의 순으로 선호하고 여자 고등학생들은 녹색, 흰색, 파랑, 노랑 순으로 선호하여 색채 기호에서 남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 특성에 따른 성인여성의 복식색채 선호에 대한 연구로 조정미(1999)의 연구결과 지역별 색채선호 경향이 뚜렷이 보여졌다. 유채색과 무채색의 지역별 착용 분포를 보면 강남 지역에서 무채색을 착용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영등포, 명동 순이었다. 유채색의 색상별 착용 분포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파랑, 빨강, 주황계열을 선호하였지만 강남의 색채선호에 대한 편협성이 특히 더 심했다.

또한, 연령과 선호색에 대한 연구로서 백선원 (1989)의 연령별 여성리뷰의 색채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20대의 경우 유행색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3,40대의 경우 고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50대의 경우에는 한색계열을 선호하였다. 일반적인 혐오색은 연령과 무관하게 주목성이 강한 고채도의 순색을 혐오하였다. 기호 의복색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계절적 감각에 따라 의복색을 선택하였으며, 이차적으로는 20대의 경우에만 정장과 평상복의 색상이 유행색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 뿐, 연령증가에 따라 사회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 정장의 경우, 보

수적이고 지적인 중간색 계열을 선호 하였으며, 자기 PR과 자아만족의 측면이 강조되는 평상복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고채도, 고명도의 색상과 유행색상을 선호하였다. 강순희, 정삼호(1990)는 성인 여성의 직물표본에 의한 색채선호와 의복 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 선호간의 비교연구를 한 결과 투피스의 경우 20대는 카나리아색, 연한 하늘색, 30대는 초록, 연한 하늘색, 40-50대는 짙은 보라를 가장 선호하였다. 조정미(1999)는 성인 여성의 연령에 따른 복식색채 선호에 대한 연구에서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무채색을 더 선호 했으며, 유채색에서는 파랑계열은 청년층에서 빨강 및 주황계열은 중장년층이 더 선호하였다. 색조분석에서는 청년층은 비비드 계열을 중장년층은 페일 색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복식색채 유행경향

과거에는 색채 기호를 민족적, 지역적, 인종적 요인으로 설명하려 했고 색채선호의 변화주기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개인적인 선호를 넘어 집단적인 색채 선호의 수용 경향은 패션이나 패드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Guilford, 1934; 野村順一, 1979)으로 설명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집단의 색채 선호의 수용 경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며 특정 패턴으로 변화한다는 유행설이 우세하다. 즉 색상(hue)에서는 찬색계열(cool shade)과 난색계열(warm shade)이, 파랑(blue)과 빨강(red)이나 고동(brown)과 초록(green)계통의 색상이 교차되고, 색조(tone)에서는 비비드(vivid)나 다크(dark)같은 강한 톤 다음에 파스텔(pastel)이나 그레이쉬(graish) 같은 부드러운 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예들이 있다. 또한 과거의 종교, 전통, 인습, 미신, 관습, 제도, 정책 등에 의한 색채 선호양식이 비교적 전체에 강요되고 있는 예가 많았지만 현대에 와서 유행 그 자체로 선택된 색채선호 경향은 주로 개인의 자유에 의해 좌우되므로 유행의 규모와 주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용훈, 1987).

복식의 유행에 있어서 유행색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근래 유행색이란 용어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용한 색과, 한 계절을 대상으로 예측 제시된 트렌드 컬러(trend color)를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Nystrom(1928)은 유행색은 사람들의 생활환경이나 시대의식에 영향을 받으며, 연속적인 경험으로부터 느끼는 권태감, 모험정신이나 호기심으로 나타나는 자극의 추구, 남과 다르고자 하는 욕망인 자기주장 등의 심리적인 원인에서 발생하여,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게 만드는 유행 현상과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복식패션에 있어서의 유행색은 착용 계절 뿐 만 아니라 그 시대의 중요 사건 및 사람들의 정신에 의해 좌우되며 트렌드 컬러(trend color) 예측도 이러한 측면을 포함하여 논의 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트렌드 컬러란 국제유행색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Fashion and Textile colors)를 기반으로 패션정보 연구 기관, 원료, 소재 전시회, 제품 전시회, 패션쇼 등이 제시하는 색채로(이호정, 1995) 시즌 별 유행색 제시는 패션 업계 전체적인 분위기를 신선하게 하고, 새로운 시대감을 표현하며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유행색에 대한 연구로 이경희(2002, 2003, 2004)의 연구에서 유행예측색의 색상별 출현 분포율을 보면 비교적 각 색상에 분산 경향을 보이나, neutral, blue, green의 출현율이 높았다. 블랙을 비롯한 neutral은 80년대 이후 유행색으로 자리 잡았고, 유채색의 조화색으로도 활용범위가 높으므로 유행예측색에서의 출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유행예측색의 톤별 출현 분포율을 보면 moderate와 neutral의 출현율이 가장 컸고, 이어서 grayish, light, strong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한정하였을 때는 색채 출현 분포는 색상에서는 neutral, brown, red가, 톤에서는 grayish, light, pale이 출현율이 높았다. 성희진(1994)은 1961년에서 1990년까지의 잡지 분석을 통하여 여성잡지 속에서 현대 한국 여성 양장에 나타난 색채와 문양의 선호 경향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선호하는 정장의 스타일은 무지의 밝고 경쾌한 인상을 주는 비비드톤의 것이지만 무채색이나, 주조색의 조화를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양 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이고 포멀한 스타일의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표본 추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2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색채 선호의 변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은진(1996)의 서울시 백화점의 지역별 특성과 소비자 구매 형태에 대한 연구와 백화점의 비공개 자료를 참고로 고객의 소비수준이 상·중·하로 분류 되는 압구정동 갤러리아, 명동 롯데, 영등포 롯데 백화점의 3곳을 선정하였다. 1998년도에는 1167명, 2004년도에는 1443명을 대상으로 스트리트 컬러 리서치를 위한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이중 연령대 구분이 명확치 않은 자료를 1차로 제외시킨 후 사진에 대한 색채 판독 작업을 하였다. 촬영된 사진 중 초점이 맞지 않거나 촬영된 사진 중 초점이 맞지 않거나 노출의 분량으로 인해 색채 판독이 불가능한 자료에 포함된 피험자를 2차적으로 제외시키고, 전문가 3인에 의한 색채 판독 중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모호하다고 판정되는 피험자를 2차적으로 제외시켜 1998년도에서는 1100명, 2004년도에서는 1393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지역별 표본추출 비율은 <표 1>과 같다. 동일 시간 내에 통행한 인원수입을 비추어볼 때 영등포 롯데 백화점의 표본 추출 비율이 '98년도의 36.7%에 비해' 04년도에 26.1%로 떨어진 반면 명동 롯데백화점 앞은 32.6%에서 40.6%로 상승한 경향을 보여 영등포쪽 상권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하향하는 추세를 볼 수 있었다.

#### 2. 거리 색채 조사방법(Street color research)

본 연구에서 의복 색채 조사방법은 선택된 지역에서 일정 시간 동안 직접 착용자의 의복 색채를 조사하는 거리 색채조사방법(Street color research)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조사지역 내에서 많은 사람이 통과하는 한 지점을 정하고, 숨겨진 카메라에 의해 그 지점을 통과하는 사람이 착용한 의복의 색채를 사진 촬영에 의해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단 시

<표 1> 지역별 표본 추출 비율

년도	지역	영등포 롯데백화점앞	명동 롯데백화점앞	강남 갤러리아 백화점앞	총계
1998년도		404명(36.7%)	358명(32.6%)	338명(30.7%)	1100명 (100%)
2004년도		364명(26.1%)	566명(40.6%)	463명(33.2%)	1393명(100%)

간 내에 많은 사람의 의복 색채 샘플을 얻을 수 있고 조사 대상자에게 작위적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 대상자의 학력, 생활수준과 같은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촬영은 1998년과 2004년 5월 18일에서 5월 22일 사이의 각 지정 장소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연구자가 지정한 위치를 위 시간대에 통과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촬영장소에서 본 촬영 직전에 기준 색표를 촬영하고 이것을 현상 시 기준 샘플로 사용하여, 현상에 의한 색 오차가 나지 않도록 하였다.

### 3. 색채 판독 및 분류

색채 판독은 각 조사 대상자의 상의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재킷 등을 덧입은 경우에는 외부에 착용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무늬가 들어간 옷은 따로 분류하여 부가적 관심으로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패션업계에서의 색채 계획은 색상과 톤(Hue & Tone System)의 이속성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纖維工業構造改善事業協會篇, 1989), 본 연구에서의 색채 분석은 색상과 톤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색상의 분류는 Munsell 표색계를 기초로한 KSCP-A-0011(한국표준색 설계기준)의 물체색의 색이름 구분에 의거하여 유채색(Chromatic color)과 무채색(Achromatic color)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유채색은 빨강(R), 주황(O:YR), 노랑(Y), 연두(GY), 녹색(G), 청록(BG), 파랑(B), 남색(PB), 보라(P), 자주(RP)의 10색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무채색은 흰색(white), 검정(black), 회색(gray) 3단계로 구분하였다. 색조(톤:Tone)은 한국공업규격 KS에 의한 색조와 수식어 분류(KBS 한국색채연구소, 1994)를 기초로 하고 기타 복식 디자인 관련 자료(이경순, 김희섭, 1998; 이호정, 1996)를 참고로 의류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10개의 색조를 본 연구의 색조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약자 및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v(vivid:해맑은), b(bright:밝은), p(pale:아주 연한), lt(light:연한), d(dull:칙칙한), dp(deep:깊은), dk(dark:어두운), ltg(light grayish:밝은 회), g(grayish: 회), dkg(dark grayish:어두운 회).

사진에 대한 색채 판독은 색채샘플(한국표준색표집, 1990; 색채I, 1994)을 사용하여 직접 대조 후 3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판독하여 기초 데이터화 하였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독이 불명확한 자료는

분석 시 제외시켰다. 이렇게 얻어진 양적 자료는 빈도 분석과 백분율,  $\chi^2$  검증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의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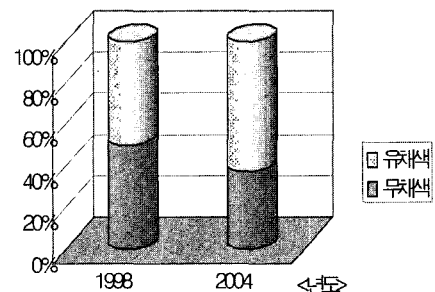
본 연구를 실행함에 있어 조사 대상자의 상의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상의의 아이템이나 스타일에 따른 구분하지 못했다. 최근의 유행 경향이 다양한 직물과 디자인의 스타일이 혼성적으로 공존하여 명확한 구분 기준을 세우기가 모호했고, 아이템에 따라서는 나타나지 않는 색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통계분석 시 기대빈도수가 5이하로 내려가 세부적인 통계분석이 불가능한 이유도 있었다. 또한 실제로 본 연구는 패션에 활발히 반응하는 20대 청년 여성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 방법상 피험자의 개인적 자료를 얻기 힘들어서 연령 구별을 연구자의 외도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또한 조사 기간이 1998년과 2004년의 5월 18일에서 5월 21사이로 5월 초여름의 날씨에 한정되어 있어 계절적 영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IV. 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연구조사 결과의 분석은 우선 무지 상의를 착용한 사람들의 복식색채를 유채색과 무채색, 유채색은 다시 색상(hue), 색조(tone)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색채선호 변화경향을 분석하였다. 또 부가적 관심으로 문양이 있는 상의 착용자의 문양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유채색과 무채색 착용경향 변화

<그림 1>에서와 같이 상의의 무채색과 유채색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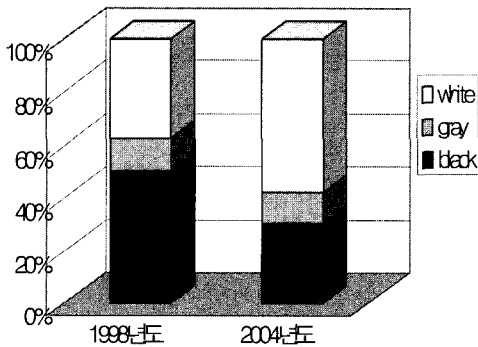
<그림 1> 년도별 유채색과 무채색의 착용경향

<표 2> 지역별 무채색과 유채색의 착용 경향

단위: 명(%)

색채	지역, 년도	영등포		명동		압구정		total	
		1998	2004	1998	2004	1998	2004	1998	2004
무채색		190 (53.5%)	121 (38.8%)	126 (38.4%)	170 (32.7%)	164 (57.5%)	174 (41.8%)	480 (49.6%)	465 (37.3%)
유채색		165 (46.5%)	170 (61.0%)	202 (61.6%)	350 (67.3%)	121 (42.5%)	241 (58.2%)	488 (50.4%)	781 (62.7%)
total		355 (100%)	311 (100%)	328 (100%)	520 (100%)	285 (100%)	415 (100%)	968 (100%)	1246 (100%)
$\chi^2$		26.54***		3.31*		18.78***		42.58***	

\* $p < .1$ , \*\* $p < .01$ , \*\*\* $p < .001$



<그림 2> 년도별 무채색 착용분포

전반적인 착용분포 변화를 보면 1998년도에는 전체 조사 대상자 중 50.4%가 무채색을 49.6%는 유채색을 착용하여, 유채색과 무채색이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였으나, 2004년도에는 37.3%만이 무채색을 착용하고 62.7%가 유채색을 착용하여 유채색의 착용의 급증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양한 색채의 유행을 예고한 2004년 S/S 패션트렌드의 경향(삼성 패션연구소,

2003)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표 2>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을 보면 영등포와 압구정 지역 모두에서는 2004년도에 들어와서야 무채색보다 유채색의 착용 빈도가 많았는데 명동에서는 1998, 2004년도 모두에서 유채색의 착용 빈도가 더 많았다. 착용된 무채색을 다시 명도에 따라 크게 흰색, 회색, 검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에 의하면 1998년도에는 무채색을 착용한 480명 중 검정색을 착용한 사람이 4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흰색으로 30.2%가 착용하였으며, 회색은 19.8%가 착용하였다. 반면 2004년도에는 무채색 착용자 465명 중 57.7%가 흰색을 착용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검은색은 30.5%, 회색은 11.8%로 착용자가 적었다. 또한 두해 모두 조사 시기가 초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였던 관계로 두해 모두 검은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도가 높은 회색과 흰색 합한 비율이 검정색을 착용한 비율 보다 많았으나 특히 2004년도에는 흰색의 증가 경향이 두드러졌다. 전체 무지를 착용한 조사대상에서 볼 때도 1998년도에는 검은색이 20, 6%로써 가장 많이 착용한 색상이었

<표 3> 지역별 무채색의 착용 경향

단위: 명(%)

색채	지역, 년도	영등포		명동		압구정		total	
		1998	2004	1998	2004	1998	2004	1998	2004
white		38 (20.0%)	77 (63.6%)	65 (51.6%)	98 (57.6%)	63 (38.4%)	93 (53.4%)	166 (30.2%)	268 (57.7%)
black		88 (46.3%)	30 (24.8%)	37 (29.3%)	52 (30.6%)	75 (45.7%)	60 (34.5%)	200 (40.0%)	142 (30.5%)
gray		64 (33.7%)	14 (11.6%)	24 (19.1%)	20 (11.8%)	26 (15.9%)	21 (12.1%)	114 (19.8%)	55 (11.8%)
total		190 (100%)	121 (100%)	126 (100%)	170 (100%)	164 (100%)	174 (100%)	480 (100%)	465 (100%)
$\chi^2$		70.46***		3.09		8.72*		64.75***	

\* $p < .02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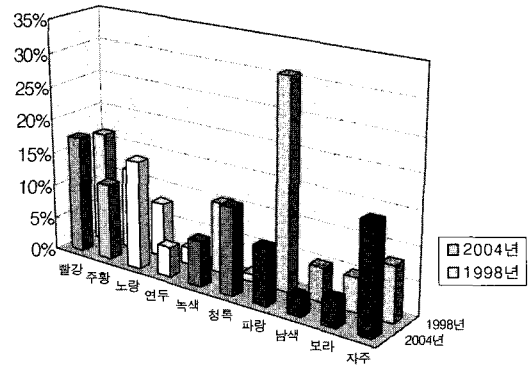
나, 2004년도에는 흰색을 268명이 착용하여 21.5%의 착용율을 보여 가장 많이 착용한 색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무채색의 색상 선호가 변화가 뚜렷이 보여졌다.

<표 3>에 나타난 지역적인 차이를 보면 영등포와 압구정은  $\chi^2$  검증에서 년도별 색채선호 변화 따른 차이가 있어 유행경향에 따른 변화를 보여 주었으나 명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특히 1998년도에서는 검정색이 유행했던 20세기말의 유행경향을 두 지역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명동에서는 흰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아 오히려 계절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여졌다.

2. 유채색의 색상착용 경향

년도별 유채색의 색상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의하면 1998년도에는 파랑, 빨강, 주황 계열을 30.9%, 16.6%, 11.9%순으로 많이 착용하였으며, 연두 계열이 2.5%, 청록 계열이

1.2%로 가장 적게 착용되었다. 반면 2004년도에는 빨강, 노랑, 자주 계열을 17.4%, 16.0%, 16.0% 순으로 많이 착용하였으며, 연두와 남색이 4.4%, 2.8%로 적게 착용되었다. 그러나 1998년도에 가장 선호된 파랑의 선호도가 30.9%에 이른 것에 비해 2004년의 가장 선호된 빨강 계열은 17.4%에 불과해 2004년도에 색상선호 경향이 1998년도에 비해 다양한 계열에 퍼



<그림 3> 년도별 착용자의 유채색의 색상분포 경향

<표 4> 지역별 유채색의 색상(hue)분포 경향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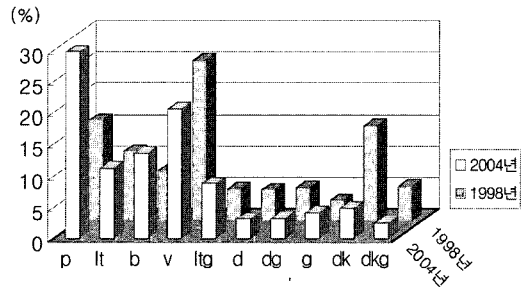
지역, 년도	영등포		명동		압구정		total	
	1998	2004	1998	2004	1998	2004	1998	2004
빨강(red)	15 (9.1%)	33 (20.1%)	39 (19.3%)	58 (16.6%)	27 (22.3%)	36 (16.9%)	81 (16.6%)	126 (17.4%)
주황(red orange)	35 (21.2%)	24 (14.6%)	6 (3.0%)	43 (12.3%)	17 (14.1%)	16 (7.5%)	58 (11.9%)	83 (11.4%)
노랑(yellow)	8 (4.9%)	30 (18.3%)	18 (8.9%)	50 (14.3%)	13 (10.7%)	35 (16.4%)	39 (8.0%)	116 (16.0%)
연두(yellow green)	4 (2.4%)	9 (5.5%)	7 (3.4%)	8 (2.3%)	1 (0.8%)	15 (7.0%)	12 (2.5%)	32 (4.4%)
녹색(green)	23 (13.9%)	7 (4.3%)	21 (10.4%)	26 (7.5%)	7 (5.8%)	16 (7.5%)	51 (10.5%)	49 (6.7%)
청록(blue green)	2 (1.2%)	18 (11.0%)	4 (2.0%)	44 (12.7%)	0 (0%)	32 (15.1%)	6 (1.2%)	94 (12.9%)
파랑(blue)	46 (27.9%)	11 (6.7%)	59 (29.2%)	27 (7.7%)	46 (38.0%)	23 (10.8%)	151 (30.9%)	61 (8.4%)
남색(violet)	2 (1.2%)	7 (4.3%)	23 (11.4%)	9 (2.6%)	0 (0%)	4 (1.9%)	25 (5.1%)	20 (2.8%)
보라(purple)	17 (10.3%)	4 (2.4%)	8 (4.0%)	14 (4.0%)	0 (0%)	11 (5.2%)	25 (5.1%)	29 (4.0%)
자주(red purple)	13 (10.3%)	21 (12.8%)	17 (5.4%)	70 (20.0%)	10 (8.3%)	25 (11.7%)	40 (8.2%)	116 (16.0%)
total	165 (100%)	164 (100%)	202 (100%)	349 (100%)	121 (100%)	213 (100%)	488 (100%)	726 (100%)
$\chi^2$	143.35***		122.59***		84.02***		71.88***	

\*p<.1, \*\*p<.01, \*\*\*p<.001

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색상을 난색계(자주, 빨강, 주황, 노랑, 연두)와 한색계(녹색, 청록, 파랑, 남색, 보라)로 나누어 분류하였을 때 1998년도에는 한색계열 52.8%로 2004년도에는 난색 계열을 67.5%로 더 선호하였다. 지역별 유채색의 색상선호를 분석한 <표 4>에 의하면 세지역 모두에서 년도에 따른 색상선호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998년도에는 세지역 모두에서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 파랑(영등포: 27.9%, 명동: 29.2%, 압구정: 38.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2004년도에는 영등포는 빨강(20.1%), 명동은 자주(20.0%), 압구정은 빨강(16.9%)과 노랑(16.4%)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 상위 색상분포 중 삼위 이상의 점유율을 합해 보았을 때 1998년에는 압구정이 74.4%로 유채색의 지배력이 가장 높았으나 2004년도에는 48.4%로 지배력지배력이 가장 낮았다. 이는 특정 유행색이 지배했던 20세기말의 유행 경향과 개인을 특성을 중시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여러 색상이 공존하는 최근의 유행 경향을 압구정이 가장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명동 지역은 59.0%, 50.9%로 큰차이가 없었다.

3. 유채색의 색조분포

년도별 유채색의 색조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 의하면 1998년도에는 비비드, 다크, 페일의 색조가 각각 25.6%, 16.0%, 15.2%의 순으로 다른 색조에 비해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여성 착용자들은 봄, 여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화려한 색조인 비비드, 밝은 색조인 페일 등의 색조가 우세한 반면 동시에 이 시기의 무채색 유행의 강세에 따라 짙고 어두운



<그림 4> 년도별 유채색의 색조 분포 경향

<표 5> 지역별 유채색의 색조(tone)분포 경향

단위: 명(%)

색조	영등포		명동		압구정		total	
	1998	2004	1998	2004	1998	2004	1998	2004
pale	32 (19.4%)	58 (35.4%)	26 (12.9%)	103 (29.5%)	20 (16.5%)	54 (25.4%)	78 (16.0%)	215 (29.6%)
light	26 (15.8%)	18 (11.0%)	9 (4.5%)	40 (11.5%)	19 (15.8%)	22 (10.3%)	54 (11.1%)	80 (11.0%)
bright	17 (10.3%)	23 (14.0%)	16 (7.9%)	39 (11.3%)	6 (10.3%)	35 (16.5%)	39 (8.0%)	70 (13.4%)
vivid	15 (9.1%)	18 (11.0%)	64 (31.6%)	83 (23.8%)	46 (38.0%)	48 (22.5%)	125 (25.6%)	149 (20.5%)
light grayish	15 (9.1%)	18 (11.0%)	9 (4.5%)	30 (8.6%)	1 (0.8%)	14 (6.6%)	25 (11.1%)	62 (8.6%)
dull	3 (1.8%)	10 (6.1%)	15 (7.4%)	3 (0.7%)	6 (5.0%)	8 (3.8%)	24 (4.9%)	21 (2.9%)
deep	14 (8.5%)	0 (0%)	6 (3.0%)	20 (5.7%)	6 (5.0%)	2 (0.9%)	26 (5.3%)	22 (3.0%)
grayish	6 (3.6%)	4 (2.4%)	4 (2.0%)	10 (2.9%)	6 (5.0%)	15 (7.0%)	16 (3.3%)	29 (4.0%)
dark	25 (15.1%)	8 (4.8%)	39 (19.3%)	14 (4.0%)	10 (8.2%)	12 (5.6%)	74 (15.2%)	34 (4.7%)
dark grayish	12 (7.3%)	7 (4.3%)	14 (6.9%)	7 (2.0%)	1 (0.8%)	3 (1.4%)	27 (5.5%)	17 (2.3%)
total	165 (100%)	164 (100%)	202 (100%)	349 (100%)	121 (100%)	213 (100%)	488 (100%)	726 (100%)
$\chi^2$	50.19***		98.39***		29.38***		95.49***	

\*p<.1, \*\*p<.01, \*\*\*p<.001



다크 색조를 동시에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페일, 비비드, 브라이트의 색조가 각각 29.6%, 20.5%, 13.4%로 밝고, 화려한 색조가 전반적으로 더욱 두드러졌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조의 분포가 미비했다. 색조 전체를 크게 밝고 화려한 색조(비비드, 브라이트, 라이트, 페일, 라이트그레이쉬)와 어둡고 차분한 색조(그레이쉬, 닷, 덜, 다크그레이쉬, 다크)로 구분해 볼 때도 밝고 화려한 색조가 1998년도에는 65.8%인 반면 2004년도에 83.1%로 더 우세했다. 지역별 유채색의 색조선호를 분석한 <표 5>에 의하면 세 지역 모두에서 년도에 따른 색조선호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조들의 분포는 1998년도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비비드나 페일에 치우쳤던 것에 반해 2004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다섯가지 톤 모두에 다양하게 분포된 경향을 보였다. 1998년도에는 가장 많이 착용한 색조가 영등포는 페일, 명동과 압구정은 비비드로 차이가 있었으나 2004년도에는 세 지역 모두에서 페일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색조로 나타나 색조의 선호 경향이 강렬함에서 부드러움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진다. 1998년도에는 다크 톤이 명동(19.3%)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압구정(8.2%)에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나 2004년도에는 모든 지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4. 문양 분포

본 연구의 부가적 관심으로 무지 및 문양 직물에 대한 선호도 비교 및 문양이 있는 직물의 상의를 착용한 여성들의 문양의 종류 및 분포를 조사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전체 조사자 1,100명중 968명(88%)이 무지의 상의를 착용하였으며, 132(12%)명이 문양

이 있는 직물을 착용하여 전반적으로 무지 또는 문양이 없는 의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경향은 2004년도에도 이어져 전체조사자 1,393명중 1246(89.4%)이 무지의 의복을 착용했으며, 147(10.6%)가 문양이 있는 직물을 착용하여 약간 줄어들었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지역별 문양의 착용 비율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는 문양 착용자의 비율은 영등포가 12.1%, 명동이 8.4%, 압구정이 15.7%로 압구정동이 가장 문양 착용자가 많았다. 그러나 2004년도를 보면 영등포가 14.5%, 명동이 8.1%, 압구정이 10.3%로 영등포가 문양 착용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압구정에서 문양 착용자의 감소가 유의적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가 착용한 문양 종류를 분석한 <표 7>을 보면 1998년에는 스트라이프 문양을 74.2%로써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었고 다음은 체크문양이 11.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두 문양을 합하면 문양착용자의 85.6%가 스트라이프와 체크를 착용하였는데 이는 젊은층들이 캐주얼 남방을 선호하고 이 아이템에서 스트라이프와 체크문양이 트레이디셔널(traditional)한 스타일로 널리 선호되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다음으로 꽃문양과 기하학문양을 각각 6.8%의 순으로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2004년도에 들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아 스트라이프가 70.0%에 이르렀다. 하지만 체크문양이 3.4%로 줄어든 반면 2004년도의 문양의 트렌드였던 수채화 분위기의 꽃무늬(삼성패션연구소, 2003)가 17.0%로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였으며, 1998년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물방울문양이 4.8%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캐주얼 남방 보다는 여성스러운 블라우스 스타일을 많이 착용한 유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과일문양이나 호피, 얼룩말의 무늬 등을 일컫는 동물문양, 문자문양 등

<표 6> 무지와 문양의 착용 경향

단위: (%)

지역, 년도 색채	영등포		명동		압구정		total	
	1998	2004	1998	2004	1998	2004	1998	2004
무지	355 (87.9%)	311 (85.5%)	328 (91.6%)	520 (91.9%)	285 (84.3%)	415 (89.7%)	968 (88.0%)	1246 (89.4%)
문양	49 (12.1%)	53 (14.5%)	30 (8.4%)	46 (8.1%)	53 (15.7%)	48 (10.3%)	132 (12.0%)	147 (10.6%)
total	404 (100%)	364 (100%)	358 (100%)	566 (100%)	338 (100%)	463 (100%)	1100 (100%)	1393 (100%)
$\chi^2$	0.98		0.32		5.00*		1.17	

\* $p < .05$ , \*\* $p < .01$ , \*\*\* $p < .001$

&lt;표 7&gt; 지역별문양의 착용 경향

단위: 명(%)

문양	영등포		명동		압구정		total	
	1998	2004	1998	2004	1998	2004	1998	2004
기하학	3 (6.1%)	1 (1.8%)	4 (13.3%)	2 (4.3%)	2 (3.8%)	3 (6.3%)	9 (6.8%)	6 (4.1%)
꽃	3 (6.1%)	16.9 (16.9%)	3 (10.0%)	11 (24.0%)	3 (5.6%)	5 (10.4%)	9 (6.8%)	25 (17.0%)
동물	0 (0%)	0 (0%)	0 (0%)	0 (0%)	1 (1.9%)	0 (0%)	1 (0.8%)	0 (0%)
스트라이프	33 (64.4%)	37 (70.0%)	20 (66.7%)	29 (63.0%)	45 (84.9%)	37 (77.1%)	98 (74.2%)	103 (70.0%)
체크	10 (20.4%)	3 (5.7%)	3 (10.0%)	1 (2.2%)	2 (3.8%)	1 (2.0%)	15 (11.4%)	5 (3.4%)
도트	0 (0%)	2 (3.8%)	0 (0%)	3 (6.5%)	0 (0%)	2 (4.2%)	0 (0%)	7 (4.8%)
문자	0 (0%)	1 (1.8%)	0 (0%)	0 (0%)	0 (0%)	0 (0%)	0 (0%)	1 (0.7%)
total	49 (100%)	53 (100%)	30 (100%)	46 (100%)	53 (100%)	48 (100%)	132 (100%)	147 (100%)

의 착용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어 아직까지는 젊은층들의 문양 선호는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차이를 보면 스트라이프 문양의 점유율이 압구정에서 1998년에는 84.9%, 2004년에는 74.2%로 커서 문양의 편중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4년도의 명동은 스트라이프의 점유율이 63.5%로 가장 낮고 또 꽃문양이 24.0%나 보여 2004 S/S 트렌드를 잘 나타내고 있었다. 문양의 색채분석은 워낙 다양한 색상들이 한 문양 안에 사용되고 있어서 어떤 분석 기준을 세울 수 없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사진을 문양별로 놓고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면 젊은층들이 많이 입는 스트라이프 문양은 1998년에는 비비드계통의 스트라이프문양이 많은 반면, 2004년도에는 가볍고 밝은 페일이나 라이트그레이시 등의 색조조합이 우세하였다. 꽃문양은 1998년에는 작고 사실적인 꽃문양들이 많았으나 2004년도에는 강렬하기 보다는 부드럽고 밝은 색조들로 번지는듯한 수채화기법의 디자인이 우세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지역 젊은여성의 복식색채의 유행경향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거리에서 대상자에 대한 직접 사진촬영에 의해 조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최근 5년 사이의 유행경향의 변화가 뚜렷이 보여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복식색채 유행경향의 변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채색과 유채색의 착용분포 변화를 보면 1998년도에는 유채색과 무채색의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였으나, 2004년도에는 유채색의 착용의 급증을 보여주어 2004년 S/S 패션트렌드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지역적 특성을 보면 영등포와 압구정 지역 모두에서는 2004년도에 들어와서야 무채색보다 유채색의 착용 빈도가 많았는데 명동에서는 조사년도 모두에서 유채색의 착용 빈도가 더 많아 변화가 없었다. 착용된 무채색을 다시 명도에 따라 크게 흰색, 회색, 검정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1998년도에는 여름입에도 무채색을 착용자 중 검정색 착용자가 가장 많은 반면 2004년도에는 무채색 착용자중 흰색 착용자가 가장 많았다. 이 수치는 2004년도 전체 색상을 놓고 볼 때도 가장 많은 착용율을 보여 최근 5년사이에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무채색의 색상 선호가 변화가 뚜렷히 변화 되었음이 보여졌다. 지역적인 차이를 보면 영등포와 압구정은  $\chi^2$ -검증에서 년도에 따른 무채색선호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명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1998년도에서는 검정색이 유행했던 20세기말의 유행경향이 영등포와 압구정동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명동에서는 비교 년도 모두에서 흰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아 오히려 계절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여졌다.

둘째, 유채색의 색상별 착용분포 변화를 보면 1998

년도에는 파랑의 선호도가 30.9%로 가장 큰 반면 2004년의 가장 선호된 빨강 계열은 17.4%에 불과해 색상 선호가 1998년에 비해 다양한 계열에 퍼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색상을 난색계와 한색계로 나누어 분류하였을 때 1998년도에는 한색계열을 2004년도에는 난색계열을 더 선호 하였다. 지역별 유채색의 유행경향 변화를 보면 세 지역 모두에서 년도에 따른 색상선호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998년도에는 세 지역 모두에서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 파랑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2004년도 빨강, 자주, 노랑 등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 유행색이 지배했던 20세기말의 유행 경향과 개인을 특성을 중시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여러 색상이 공존하는 최근의 유행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유채색의 색조별 착용분포 변화를 보면 1998년도에는 비비드, 다크, 페일색조 순으로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착용자들은 봄, 여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화려하고 밝은 색조와 동시에 이 시기의 무채색 유행의 강세에 따라 짙고 어두운 다크 색조를 동시에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페일, 비비드, 브라이트의 밝고, 화려한 색조가 전반적으로 더욱 두드러졌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조의 분포가 미비했다. 지역별 유채색의 색조선호를 변화를 분석하면 세 지역 모두에서 년도에 따른 색조선호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조들의 분포는 1998년도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비비드나 페일에 치우쳤던 것에 반해 2004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다섯가지 톤 모두에 다양하게 분포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밝은 색조의 선호의 전반적인 경향이 비비드의 강렬함에서 부드러움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본 연구의 부가적 관심으로 무지 및 문양 선호도 변화와 문양의 종류 및 분포를 조사하였다. 조사년도 모두에서 문양이 있는 상의의 착용은 10%내외를 유지했으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도 않았다. 지역별 문양의 착용비율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는 압구정이 2004년도에는 영등포가 문양 착용자가 가장 많았다. 전체 조사 대상자가 착용한 문양 종류를 분석해 보면 조사년도 모두에서 스트라이프 문양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었고, 다음 순서로는 1998년도에는 체크문양을 2004년도에는 꽃문양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된 문양의 종류가 매우 한정되어 젊은층들의 문양선호는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지역적인 차이를 보면 특정 문양의 점유율이 압구정에서 가장 큰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매년 제시되는 유행색 경향과는 별도로 각 백화점 및 패션 브랜드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톤과 색상기획에 보다 명확한 자료로 사용되고, 각 색상별 생산량 및 구매 조절 등의 기초자료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진행 과정상 초여름에 국한되어 계절변인의 영향을 밝히지 못했으며, 조사년도가 두해의 데이터에만 의존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복식색채 유행변화의 연구는 이것을 바탕으로 보다 주기적이고 시계열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의해 유행색상 선호의 변화주기와 변화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애란. (1990). *Suit의 색과 신체 노출이 정숙성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공업진흥청, 한국방송공사. (1990). *한국표준색표집*.
- 강순희, 박준경. (1987). 우리나라노년층의 복식 기호조사. *주간섬유*, 6월.
- 강혜원. (1995). *의상 사회심리학(2판)*. 서울: 교문사.
- 김순애. (1987). *아동복의 색채와 기호색에 대한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인, 추선행, 조민정. (1999). 아동복색채선호에 대한 연구. *복식*, 42, 59-68.
- 김영인, 고애란, 홍희숙. (2000). 의복 이미지 선호에 따른 20대 여성 정장시장 세분화 및 색채 선호도. *한국의류학회지*, 24(1), 3-14.
- 김영자. (1989). *한국 복식미의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인수. (1985). *색채가 의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훈 편저. (1987). *MERCHANDISING을 위한 색채상품개발론*. 서울: 청우, 17.
- 김은애, 이명희. (1992). 가치관과 의복의 이미지 및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 18, 269-281.
- 박영순, 이현주. (1998). *색채와 디자인*. 서울: 교문사, 9.
- 박은주. (1998).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284
- 백선원. (1989). *여성의류의 색채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석재은. (1993). *성인여성의 자아개념과 의복색채선호도와 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희진. (1994). *현대 한국 여성에 나타난 색채와 문양의 기호도에 관한 연구*. 1961-1990-년간의 잠지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아른하임, R. 김춘일 역. (1981). *미술과 시지각*. 서울: 홍성사, 448-449.
- 은영자, 박소희. (1996). 20대 남녀의 의복 색상 선호도에 관한 연구-대구 시내를 중심으로-. *복식 문화연구*, 4(3), 305-323.
- 이경순, 김희섭. (1998).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117.
- 이경희. (2004). 패션산업의 색채관리를 위한 조사용 컬러코드의 설계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285-296.
- 이경희. (2003). 대구·경북지역 폴리에스테를 직물의 표준색표집 설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5(3), 39-52.
- 이주현. (1990). *의복단서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희. (1989). 한국인과 미국인 여대생의 의복색상 선호도 비교 연구. *誠心外專論文集*, 8, 593-625.
- 이호정. (1995). *복식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190-193.
-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 조민정, 김영인. (1998). 국내 섬유 패션업계의 색채사용 체계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606-616.
- 조정미. (1999). 성인여성의 연령에 따른 복식 색채 선호도에 대한 연구 -Street Color Research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 1-11.
- 조정미. (1999). 지역특성에 따른 성인여성의 복식색채 선호도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소논문집*, 19, 129-144.
- 조희련. (1993). *색채 기호도와 이미지에 관한 조사*. 효성여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진. (1996). *서울시 백화점의 지역별 특성과 소비자 구매 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삼호. (1987). 성인여성의 의복에 대한 색채 및 배색 선호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총*, 1.
- 정삼호. (1990). 성인여성의 직물표본에 의한 색채선호도의 복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 선호 간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 논총*, 4, 55-74.
- 정지현. (1983). *색채기호와 색연상에 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 小林重順. (1965). *チサ仁のための色彩心理*. 東京:誠信書房, 92-95.
- 野村順一. (1979). *商品色彩論*. 東京:千倉書房.
- 纖維工業構造改善事業協會篇. (1989). *色彩資料總攬*. 纖維工業構造改善事業協會篇, 8-9.
- Birren, F. *색채심리*. 김화중 역. (1989). 서울: 동국출판사.
- Chamber, B.G. (1951), *Color and design*, NY: Prentic Hall, 109.
- Eckman, M. Damhorst, M. L. & Kadolph, S. J. (1990).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on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3-22
- Guilford, J. P. (1934). The effective value of color as a function of hue, tint and chroma.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7, 342-370.
- Lind, C. (1993). Psychology of color : Similarities between abstract and clothing color preferen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1), 57-64.
- KBS한국색채연구소. (1994). *색채 I, II*.
- Radeloff, D. J. (1991).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itudes, and color preferences of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59-67.
- Susan Berry, & Judy Martin. *Designing with Colour*. 김미자 역. (1997). 서울: 예경, 8.
- Williams J., Abaugh J. & Rucker M. (1980). Clothing color preference of adolescent fema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1), 57-63,